

기아 오토랜드광주,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양산

48년만에 개선 모델...2½·5t 디젤 8단 자동변속
이달부터 육군 인도...“혁신 모빌리티 비전 제시”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양산이 본격화된다.

기아는 10일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에서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 Kia Medium Tactical Vehicle) 양산 출고 기념식 행사를 갖고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아 특수사업부장 김익태 전무와 오토랜드 광주 문재인 전무,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양산되는 중형표준차는 지난 1977년 이후 48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이다.

기아는 2019년 12월 육군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제품 개발,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평가, 초도 시험 및 선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양산에 나서게 됐다. 2½t과 5t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중형 표준차는 280마력(2½t), 330마력(5t)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다. 수심 1m 하천 도섭, 60% 종경사 및 40% 횡경사 주행, 전자파 차폐 설계, 영하 32도 냉시동, 런플랫 타이어, 최대 25명(5톤 기준)까지 탑승 가능한 승승 능력을 갖추고 있어 험난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주행 능력을 발휘한다.



기아는 10일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에서 김익태 전무(특수사업부장)와 광주공장장인 문재인 전무,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중형표준차 양산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

군용차임에도 어라운드 뷰, 에어 서스펜션 시트,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최신 편의사양이 대거 포함됐다.

기아는 이달부터 육군에 중형표준차를 인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중형표준차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군용차량은 협지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

을 적용해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특수차량을 개발하는 등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한국 군용차의 역사와 함께 했다. 1985년 국내 유일의 특수차량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 뒤 1997년 신형 지프(K-131)를 양산하고 2001년 15톤급 중장비 수송차량(트랙터)을 군에 납품하는 등 다양한

군용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 국내 최초 다목적 전술차량인 소형전술차(KLTV, Kia Light Tactical Vehicle)도 양산했다. 소형전술차는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 군용차량 교체 사업에서 신규 차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CONOMY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동반 상승
금리 인하·새 정부 출범 기대감

광주·전남지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함께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달 광주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7로, 전월(81.3) 대비 4.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 4월 75.0으로 하락전한 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전남은 77.8을 기록, 전월(69.2)과 견줘 8.6p 치솟았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4월 58.3) 상승세다.

주산연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주담대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새정부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산연은 봤다.

한편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94.6으로 수도권은 2.5p(107.1→104.6) 하락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2.2p(90.3→92.5) 상승 전망됐다.

분양가격전망지수는 8.9p 상승, 분양물량전망지수는 1.0p 상승, 미분양물량전망지수는 5.5p 하락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주)씨아이에스케미칼

‘강소기업 1000+’ 현판 수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주)씨아이에스케미칼을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광주 진곡산단에 위치한 (주)씨아이에스케미칼은 고순도 알루미늄, 이차전지 양극도핑제, 전구체용 원료 소재를 생산하는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소재 전문기업이다.

고순도 알루미늄 상용화 기술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양극제 제조업체와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또 광양공장에서는 연산 2만t 규모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이차전지 전구체용 원료 소재인 고순도 니켈 수산화 침전물(Pure-MHP)을 양산해 국내·외 배터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수출 관련 애로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에서는 총 8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지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수여를 진행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KPS, 체코 원전 시운전정비 준비 ‘착착’
유럽 원전시장 본격 진출... 기술력·신뢰 동시 확보

한전KPS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본계약 체결 이후, 시운전정비 및 가동 전 검사 등 전담 예정 업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일 체코 국영전력회사 EDU II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APR1000 노형 2기를 체코 남부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해외 신규원전 수주다.

한전KPS는 이번 사업에서 원전의 마지막 공정이랄 할 수 있는 시운전정비와 가동 전 검사를 전담한다.

시운전정비는 기기 성능 시험, 계통 점검, 고장 복구 등을 통해 상업운전 전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작업이다.

이를 위해 한전KPS는 체코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HOCHTIEF CZ, I&C Energo, TES Vsetin 등과 MOU를 체결하고, 시운전정비 협력, 인력 양성, 정비 인프라 구축 등

에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CEZ, Energoservice, SKODA JS 등 현지 핵심 원전 기업들과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체코 정비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UAE와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비체합 프로그램을 운영, 사물레이선과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 것도 현지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한전KPS는 브라질 앙그라 2호기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정비 수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 등 글로벌 정비사업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세계 최단기간에 수행한 경험은 유럽 중수로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국내 28기, UAE 4기의 원전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 사업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이번 성공을 기반으로 후속 유럽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iM뱅크, 담양서 달빛동맹 봉사

2015년부터 영호남 오가며

상생·동반성장·나눔 실천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항토은행 임직원들이 양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전남 담양군에서 iM뱅크(구 대구은행)와 함께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은 달빛동맹 행사는 지난 2015년 ‘빛고를 광주광역시’와 ‘달구별 대구광역시’가 맺은 달빛동맹 교류에서 시작됐다.

그간 광주은행과 iM뱅크 임직원들은 영호남을 오가며 양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함께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달빛꾸러미’ 제작, 명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전남 담양군에서 iM뱅크(구 대구은행)와 함께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가졌다.

인과 함께하는 담양 한과 만들기 체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한 소원패 달기 등 양 기관의 협력과 화합을 다지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담양 특산물 유과, 강정에 온기를 함께 담은 달빛꾸러미는 담양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과 iM

뱅크가 함께하는 달빛동맹 교류 행사는 지역사회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농업가치 확산 앞장

작년 4만8000명 참여...16개 지역본부·1100개 농·축협 연계

농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며 농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농촌의 위기 대응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은 현재 연 4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 농촌 지원 모델로 성장했다.

농협은 자사가 보유한 16개 지역본부와 1100여개의 농·축협 네트워크를 활용해 봉사를 희망하는 국민과 일손이

시급한 농가를 직접 매칭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로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앙그룹, 넥센타이어, 노사발전재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30여개 기업·기관이 봉사에 참여했다.

농협은 활동비 일부와 장갑, 모자 등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농협 직원이 직접 동행해 안전 관리 및 작업 지도를 맡고 있다.

봉사자들은 계절에 따라 모란 나르기, 사과 적과작업, 배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

들은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농촌과 복지 현장에 있는 ‘이중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농협은 단순 노동력 제공을 넘어,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 설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가 발급되며, 일부 기업은 이를 인사고과나 사회공헌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농협은 이 사업을 ‘농업 기반 ESG 실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ESG실천기업’ 제도와 연계해 참여기관을 발굴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넥센타이어와 함께한 농촌봉사활동 모습.

광주상의, 청년 ‘필수 스펙’ 일경험 제공

인재육성아카데미와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자원센터에서는 (사)인재육성아카데미와 함께 최근 ‘2025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1차 연수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연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업에서 제안한 실무 기반 과제를 청년들이 수행, 실무 중심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일경험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지난날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 마스터 과정 20명, IT마스터 과정 8명, 홍보마케팅 마스터 과정 27명 등 총 55명의 연수생이 수료했다. 참여자들은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값진 경험을 쌓았다.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에는 퍼포먼스마케팅 전문기업인 ㈜아토모스와 광주·전남 취미플랫폼 기업 ㈜모람플랫폼이 참여해 각각 커머스기업 실전 퍼포먼스마케팅, 취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마

케팅 방안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들 기업은 연수생들의 프로젝트수행 과정에 실질적인 멘토링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과공유회에 직접 참여해 우수 프로젝트팀 시상과 장학금까지 지원하며 연수생들의 동기 부여와 원활한 프로젝트수행을 적극 지원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우수 프로젝트팀 시상, 최우수 연수생 시상, 참가수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1개월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생들은 다양한 소감을 공유했다.

수료 이후에도 연수생들에게는 담당관 상담을 통한 진로 및 취업 상담, 채용정보 제공, 서류 및 면접 컨설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제공되며, 지역 기업과 청년 인재 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인재육성아카데미는 올해 총 4회의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과정의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